씨엠씨코리아 '이노헥사' · '투보르탄' 사용 농가 Interview

인터뷰 전남 무안 이철원 농가

"품질 · 수확량 증대 씨엠씨코리아 제품으로 한번에 해결"

수확한 쌀 전량 특등급…
벼 · 콩 등 전면적 사용

이상기후 대비 '이노헥사'

규산 · 살균 한번에, '투보르탄'



"과거와 달리 지금 소비자는 보기 좋지 않은, 맛이 없는 재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고 맛 좋은 쌀을 생산해 선보이기 위해 이제 농가들도 변화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의 하나로 씨엠씨코리아의 제품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매년 제가 수확하는 쌀은 특등급으로, 밥 맛 좋은 쌀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농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씨엠씨코리아가 선보이고 있는 '이노헥사'와 '투보르탄'을 추천한 전남 무안의 이철원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현재 벼와 콩을 주 작목으로 삼고 영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논 20마지기에 새청무를, 콩의 경우 1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재배를 하고 있다.

– '이노헥사'와 '투보르탄'을 접하게 된 계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이상기후, 병해충 발생 등으로 매년 농사짓기는 어려워지고 품질도 고르지 못해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다. 또 소비자 역시 맛 좋은 쌀을 원하는데 품질이 고르지 못하니 결국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 찾은 것이 바로 씨엠씨코리아의 '이노헥사'와 '투보르탄'이라고 할 수 있다.

– 4년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 시범재배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한 벼와 사용하지 않은 벼에서의 차이가 확연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밥 맛에서 더욱 크게 드러났다. 2년차부터는 전 면적 사용하게 됐다. 미질은 물론 수량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수매에 전량 특등급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제품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투보르탄의 경우 나 말고도 현재 많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미 그 우수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특히 지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인건비에 농자재비 등으로 농가가 어려운 시기 투보르탄은 살균과 규산처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열병이 크게 유행했는데 투보르탄을 사용한 결과 문고병, 도열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 또 규산 인산, 동의 비료기작으로 미질향상과 수확량 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여 벼 재배 농가에선 이만한 효자 제품은 없다고 생각한다.

함께 사용한 이노헥사는 대사 촉진제로 기후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발달을 도와 고품질 다수확은 물론 수확시기를 앞당겨 준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 '이노헥사' · '투보르탄' 관심을 보이는 농가에게.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검증됐는지, 생산업체가 얼마나 농가를 생각하며 제품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는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나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씨엠씨코리아의 이노헥사와 투보르탄이었다. 시장에 벼와 관련된 유사한 제품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진짜 농가를 위해 제품을 만들고 농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씨엠씨코리아와 씨엠씨코리아가 선보이는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기에 품질과 안정적인 수확을 원하는 농가라면 적극 사용해보길 바란다.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사유림 경영 현장을 가다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성공적인 사유림 경영 위해 지혜 모은다

운영위원회 꾸리고
산림경영 방안 모색

조림부터 산주 · 임업인
소득사업까지 다양



산림청에서는 산주 동의를 얻은 500㏊ 이상의 규모화된 산림을 선정해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 대신 10년간 산림을 책임 경영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방치된 산림을 전문 경영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산주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춘천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또한 사유림의 선도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775㏊에 달하는 면적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 '산림'살이 마련에 박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역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단지 비전과 목표, 추진사업, 추진과제 등을 수립했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정밀산림조사 ▲임업 및 임산업 사회 · 경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마다 별도의 전문기관에 각각 용역을 발주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도 산주와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지자체, 경영주체 등이 여러 차례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빼놓지 않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산림살이하기 좋은 춘천 사북, 돈이 되는 숲! 함께 어울리는 숲! 터전이 되는 숲!'이라는 핵심 비전을 세웠으며, 세부적으로 임도 시설 구축, 산림 방문객 조성, 일자리 창출, 목재생산 및 임산물 생산액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목표도 수립했다.

지역주민 누구나 산림경영 주체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자 바로 산주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도 산주가 자발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는 경영역량, 재배기술, 지원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산림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경영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뿐 아니라 산주와의 소통체계를 확립해 산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주체인 춘천시산림조합에서는 산주가 소유한 산림에 대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가능지 여부, 원목 판매 시 용도, 원목 가격, 수취가격 등 사유림 경영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단지 내 산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산주,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경영주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량, 사업비 등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운영에 참여해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다양한 소득사업 추진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계획에 맞춰 조림, 숲가꾸기, 사방사업, 소득사업 등 산림경영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78.21㏊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마쳤다. 3.5㏊ 면적에는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특용수(음나무)를 식재했으며, 그 밖에 조림지가꾸기사업도 완료했다.

산림소득작목반을 결성해 소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선도 단지 내 마을림에 산마늘, 표고버섯재배 원목, 더덕, 산당귀, 취나물, 눈개승마, 두릅나무 등을 식재해 임산물 재배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단지 내 활엽수 임지에 대해 직영벌채(3.5㏊)를 추진해 600톤 규모의 임목수확사업을 시행했다. 벌채목 판매로 약 4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산주에게 약 570만원을 환원했다.

춘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10년간의 산림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사유림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산주와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